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대응 논의 박차

### 도, 1월 중 ‘자치행정 실무TF’ 출범·가동 계획 주민자치기능·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전반적인 제주 자치행정 현안·이슈 논의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을 비롯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 관련 현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칭)자치행정 실무 TF’으로 활동할 전문가 13명(학계,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구성이 잠

정 완료됐다.

행정인력 4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질 실무TF는 1월 중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연장이 끝나는 1월 중순 이후에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실무TF는 지난해 32

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더 나은 주민참여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새롭게 발굴하고,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이에 따른 선거구획정 로드맵, 주민자치기능(행정시 기능 강화 등) 등 전반적인 자치행정분야 현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 구성이 주목된 바 있다. TF를 통해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 4개 구역 조정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을 포함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한 3개 구역조정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온 것이다.

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좌 의장은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함을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신축년, 상생의 힘으로 일상 되찾을 것”

### 문대통령 1일 신년 메시지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새해를 맞은 지난 1일 “상생의 힘으로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로 시작하는 신년 메시지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시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

과 함께 걸겠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시는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21년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라며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신축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지난 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관련해 모두 이상국기자

### 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제주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제주 출신 대학(원)생과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지난해 2학기 기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재(휴)학생과 졸업(중·자퇴 포함)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jeju.go.kr/uni.htm)에서 할 수 있다. 지원 결과 발표는 오는 6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 민주당 “사면 문제 당사자 반성이 중요”

이낙연, 사면 건의 보류 언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쳐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 이 대표가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총정에서 비롯된 것

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사면과 관련해 언급한 뒤 여당 지도부에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나오고, 강성 지지층에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라며 “이 급선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 건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반성이) 중요하다고 (당 발표에) 돼 있다”라면서 일단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해 사면 건의는 보류할 것임을 내비쳤다.

국회·부미현기자

### 4·3특별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 여부 주목

### 이낙연, 1일 현충원 방문서 “급한 법안 처리” 의지 언급 민주당 5일 법안소위 의결... 8일 본회의 상정할 계획

임시국회가 오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시국회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 지켜질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중점 처리하겠다”며 “더 급한 법들은 그 이전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언급한 ‘더 급한 법안’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주요 법안 등 현안을 두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에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행정안전위원회 4·3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가덕도 공항 특별법 등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6~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야당과의 의사일정 논의에 나선 상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무장애 올레길’ 시범 운영

제주시는 올레 지역내 13개 올레코스 중 한 두 개 코스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길로 시범 운영한다.

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올

레길 코스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이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렌터카와 자가용 이용자는 물론 관광객이나 노약자 등이 1~2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올레길 순환 코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 희망찬 2021년을 기대하며 생명을 살리는 약속에 함께해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약속에 함께해주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으로 장기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세요.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전국민의 3%, 매일 7.5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시 작성한 주소지로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등록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기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면 1588-1589로 전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우편으로 요청하세요!

### 1분이면 가능한 모바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